

담양군, 한국판 뉴딜로 제2의 대나무신산업 이끈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서 전남도 유일 선정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투자해 연구개발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으로 전국 252개 신청사업 중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전국 161개 지자체가 252건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시도대표단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담양군이 제출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시설을 통한 대나무 연구 시설 및 인력 확충, 기후변화 대응식 물로서 다양한 대나무 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나무산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후 변화 대응식물인 대나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담양이 전 세계의 대나무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폭염 대비 분주

그늘막 설치·도로변 살수 등 무더위 휴식시간제 준수 당부

장마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화순군이 군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로 분주하다. 화순군은 20일 여름철 재난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폭염저감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건널목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35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스마트 그늘막 4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살수차로 도로변에 물을 뿌려 도시 열섬화 현상을 누그러뜨리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인다.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주요 승강장 21곳에는 대형열음을 마련해 놓을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영1차아파트 놀이공원과 우체국 앞 등에 설치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순=박종영기자

곡성군, 벼 주요병해충 발생 조사 순회예찰반 운영

벼 멸구류·흑명나방 등 조사해 방제대책 수립 계획

곡성군이 30일까지 벼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를 위한 순회예찰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마전선에 따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중국에서 벼 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등 해충이 날아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지적인 강우로 인해 잎도열병 등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순회예찰반을

통해 주요 지역에 벼 멸구류, 흑명나방 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방제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마철 농작물 전염병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서는 것이다. 조사는 11개 읍면마다 각각 10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멸구류 증식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8월 상순이 방제에 적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곡성군도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8월 상순부터 8월 하순까지 멸구류 중점 방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잎도열병이나 문고병 등은 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즉시 방제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군민들께서도 병해충 발생 신고와 자체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장성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 '적합' 판정

유두석 군수 "수돗물 안전성 입증... 깨끗한 물 공급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장성군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중 2분기 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채수는 장성정수장과 일반 수도꼭지 11개소, 급수 과정별 5개소에서 진행됐다.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납, 불소, 비소 등 43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질산성질소 등 17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16곳을 선정해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먹는 물의 수질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수질검사 결과를 통해 장성군의 상수도 안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두석 군수는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은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6억원을 들여 정수장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장 공정별 모니터링 시행과 유충 퇴치기 설치를 통해 수돗물 유충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이 매일 실시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산수려밥상' 대표음식점 지정

구례군은 19일 관내 음식점 중 4개소에 '구례군 산수려밥상' 대표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 군은 2019년부터 대표음식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고장, 구례를 대표하는 산수려밥상 메뉴를 개발했다.

수제비에 '구례밀밭'이 선정됐다. 해당 음식점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밀반찬 기술 전수와 매뉴얼화된 소스를 개발하여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품평회를 실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로 차별화

지역특산물 활용 구례 대표음식 메뉴 개발 음식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 강, 들의 테마로 지역특산물인 자연산버섯, 은어·쏘가리, 우리밀을 활용한 밥상을 개발했으며, 지정신청업소 현지평가를 거쳐 대표음식점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대표음식의 주메뉴 중 자연산 버섯샤브찌골은 '산아래찌집'과 '참새미골체험식당', 은어·쏘가리에는 '전원기든', 우리밀다슬기

된 대표음식점을 육성하고 앞으로 트렌드에 어울리는 음식관광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음식점에 대표메뉴 전광판이 게시되고 각종 위생용품 지원한다. 구례=박진호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